

“광주 아동친화도시, 어린이 목소리도 담아주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4> 심화교육

놀이로 유엔아동권리협약 공부
협력 통한 문제 해결방법 배워
“사회에 요구할 권리 알게 돼”
일상적 사례 통해 이해도 증진

광주의 어린이들이 광주시의 정책에 아동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소속 아동권리옹호단 단원 15명은 지난달 13일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첫 활동인 ‘놀이를 통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심화교육’에 참여해 광주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 이해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광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6~2030) 수립’에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진행 중인 ‘광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1~2025)’의 부문별 정책과제를 살펴보고 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좋았던 과제, 앞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선정해 도출한 의견을 실제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단원들은 게임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권리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과 이해를 증진했다. 또 광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조성과 관련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반영, 추후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아동권리 게임은 △권리풍선 지키기 △몸으로 말해요 △고깔모자 쓰고 UNCRC 조항 찾기 △계단 가위바위보 △시간 맞추기 △계단판에 탁구공 던지기 △글씨

오려서 아동권리 관련 글씨 만들기 순으로 진행됐다.

활동에 참여한 단원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게임으로 접목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협약의 핵심 요소를 쉽고 재밌게 학습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단원 박채언(10)양은 “서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 특히 권리가 적혀있는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동하는 활동을 하면서 권리는 혼자 힘으로 지켜나가기보다 함께 노력하고 서로 그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단원 김민서(9)양은 “우리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고 했고 단원 모우빈(10)군은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의 권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대해 알게 됐다”며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사회

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번 활동에서 아동들은 △12조 아동의견 존중 △16조 사생활 보호 △28조 교육받을 권리 △31조 여가와 놀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6조 생존권과 발달권 △15조 참여의 자유 △27조 기본적인 생활수준 △39조 상처입은 아동보호 등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옹호활동(조별활동 및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의견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해도가 낮은 조항들은 아동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거나, 추상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접목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부분 아동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중요성을 일상적

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아동들에게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례를 설명해 아동들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지역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동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의 견해가 그들과 관련된 가정, 학교, 법원 및 관련 행정절차와 기타 절차에서 정당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는 아동 참여권 증진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 법, 프로그램, 예산 등 지역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와 같은 옹호단 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방침이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최근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아동권리옹호단 단원 15명이 참여해 하반기 첫 활동인 ‘놀이를 통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 제공

광주경찰, 딥페이크 피해 사례 첫 신고 ‘조사 착수’

디지털 포렌식 등 진행 예정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 속 광주에서도 첫 학생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광주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광주의 한 학교에서 ‘10대 A군이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복수의 또래 학생의 얼굴과 음란물을 불법 합성한 영상물이 A군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신고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관련 증거물 확보·분석에 나선다.

다만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공유하는 형태의 범죄와는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을 통해 A군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것인지, 다른 이들에게 배포한 정황은 없는 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관련 피해 의심 신고가 접수돼 기초 사실 관계부터 파악 중이다.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확한 신원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A군과 피해 의심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지리산국립공원서 미기록 생물 12종 새로 발견

생물다양성 증진 자체 조사

지리산국립공원에서 그동안 기록되지 않았던 생물 12종이 새롭게 발견됐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27일 국립공원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체 조사에서 지리산국립공원 미기록 생물 12종을 신규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새로 발견한 지리산국립공원 미기록 12종 가운데 식물은 △실비녀풀 △가

느흰사초 △구내풀 △나래사초 △애기염주사초 △무늬사초 △웅단사초 △화살사초 △흰사초 등이다. 곤충은 △푸른아시아실잠자리 △큰청실잠자리 △하나잠자리가 포함됐다.

국내 기록은 있지만 지리산국립공원에 기록되지 않은 생물 중 관찰 시기가 짧고 동정이 어려운 분류군을 대상으로 자원조사직 직원과 야생생물보호단이 집중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정상이 기자

제25회
함평
모악산

2024.9.12.-15.
함평군 해보면 꽃무릇공원

꽃무릇
축제

주최: 함평군 주관: 함평축제관광재단 후원: 산림청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관광공사 KOREIL 안국철도 해보면면협의회